

여러의 통일속망을 물어주시려고 (7)

역사적인 7.4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된 후에도 미국의 비호밑에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매달려온 남조선당국은 1973년 6월 23일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을 팔자로 하는 이른바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민족분열을 고착시키고 영구화하려고 하였다.

반통일세력의 이러한 책동은 반만년 오랜 세월 단일민족으로 살아왔으며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가장 악랄한 배신이며 도적이였다.

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이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미전부터 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음모책동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그것을 분쇄할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무리

익혀오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62(1973)년 6월 23일 남조선 당국이 이른바 《특별성명》을 발표하지 불과 몇시간후에 진행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당시 체스코슬로벤스프 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 중대회에서 하신 연설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조국통일5대방침을 새롭게 내외에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북남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5대방침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구체화한것으로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견지하여야 할 관한 예속에적립장을 뚜렷이 구현한것이였다.

이 방침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을 폭넓고 정확히 반영한 가장 현실적인 정당한 방침이며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시으로써 세상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에서 누가 진정으로 분열을 반대하고 통일을 원하며 누가 통일을 반대하고 분열을 추수하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수 있게 하시였다.

조국통일5대방침이 제시됨으로써 남조선당국자의 반통일적인 이른바 《특별성명》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몇시간만에 풍지박산났으며 삼천리강토는 다시금 뜨거운 통일열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조국통일5대방침은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전체 조선인민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5대방침을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을 가장 훌륭히 반영한 민족의 대강령》, 《영구

분렬의 위기를 막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길을 환히 밝혀준 등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로운 전방을 열어주고 그것을 승리로 종착시킬수 있는 위대한 강령》으로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미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언론들과 정계, 사회계 인사들도 《조선문제해결의 리상적이며 실현적인 해결의 길》,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등으로 조국통일5대방침을 지지하였다.

진정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노고가 있어 조국통일운동은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즐기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위세와의 《공조》는 카멜의 길

최근 윤석열패들이 《한미의 빈틈 없는 공조》를 떠들면서 미국의 반공화국제세속에 적극 맞장구를 치고있는가 하면 《한미확장경제전략협의체》의 제가동, 미전략자산의 남조선 전개, 《한》미합동군사연습의 확대 등을 떠들며 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침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매국역적, 대결광들만이 저지룰수 있는 추악한 민족반역행위가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의 하나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군사적강점과 지배이다. 이것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 나라의 평화를 이룩할수 없다.

더우기 지금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전대시정책을 계속 추수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봉쇄, 군사적압박수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미국이 핵동력항공모함전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전쟁장비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전개하고 남조선호전파들과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여놓고있는것은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고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런데도 윤석열패당은 《한》미합동군사연습개, 미전략자산의 남조선전개, 《한국형3축전략체계》구축 등에 대해 떠들며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이것은 북남사이에 대결과 불신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외세와의 공조는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이라는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대결공조, 전쟁공조, 반역공조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윤석열이 미국상전과 함께 반공화국대결과 북침기도를 그대로 반영한 그 무슨 《한미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는데 대해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핵전쟁선언》, 남조선이 지배와 예측의 울가미를 더욱 깊숙이 쓰게 만든 《공조선언》, 《현대판 을사5조약》, 《망국선언》으로 규탄배격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민족의 지향과 념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외세와의 공조는 곧 수치스러운 자멸의 길이다.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책에 추종하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날뛰다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남조선의 력대 독재 《정권》의 비참한 말로가 이를 잘 말해주었다.

윤석열패당이 저들스스로 선택한 침미사대와 외세굴종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날도 결코 멀지 않았다.

전영일



본사기자 강류성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애국적인 사상계몽운동의 시작과 새로운 투쟁단체들의 결성

4월인민봉기이후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참다운 삶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진출은 더욱 강화되었다.

4월인민봉기후 합법적활동을 시작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학생들을 《신진회》성원들을 비롯한 핵심적인 학생들은 학생운동을 새로운 계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갔다.

이러한 속에 1960년 7월초부터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제자주정신으로 계몽시키며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을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한 《신생활계몽운동》이 시

작되었다.

4월의 투쟁정신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인민들에 대한 계몽사업을 진행할것을 모든 대학들에 발기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은 《신생활계몽대》를 두고 남조선의 134개 시, 군에 내려가 애국적계몽운동의 불을 지폈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의 이 운동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인천 등지에 있는 여러 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어져 하나의 사회계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학생들은 어

름방학을 리용하여 농촌에까지 《신생활계몽운동》을 벌려 농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신생활계몽운동》은 인민들을 민족자주사상으로 교양하는 애국적인 사상계몽운동이었다.

투쟁단체와 조직들은 우리는 사업도 각계층속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4월인민봉기때 부상당한 서울의 학생들은 《4.19부상동지회》를 조직하였고 마산봉기과정에서 부상당한 학생청년들은 《3.15의거부상동지회》를 꾸렸다. 남조선청년학

생들은 또한 진보적인 청년단체들인 《4월학생혁신연맹》,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주인민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였다.

녀성들의 새로운 투쟁조직으로서 《전국녀성단체협의회》도 결성되었고 대학들의 진보적교수들은 《한국교수협회》를 꾸렸다.

외세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당한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의 유가족을 묶어세운 《전국피학살자유족회》도 조직되었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남조선

실업자들은 《전국실업자연맹》을 비롯한 실업자단체들을 꾸렸다.

학계, 언론계에서도 권력에 아부굴종하며 진리를 등지는 무리들을 배격하고 시대의 요청과 대중의 지향에 따르면서 외세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졌다. 문학과 예술계에서도 4.19투쟁정신을 이어 새 정치, 새 생활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본사기자 강류성

통일을 불러 인생말년을 련공애국, 통일애국의 길에 (6)

공화국에 영주한 후 최덕신선생의 하루하루, 그것은 통일애국위업에 헌신한 나날이었다.

그는 공화국정부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통일방안들을 내놓을 때마다 그것을 적극 지지하여 성명과 담화들을 발표하곤 하였다. 해외동포들을 만나는 공화국의 현실에 대하여 그리고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체험에 기초하여 이야기해주었다.

특히 그는 《김정일 그의 한울림》(1989년), 《만고의 위인 김정일》(유교작, 1990년)과 같은 책을 써내 조국통일의 구성인 절세의 위인들의 위인상을 널리 소개하였다.

그가 고향의 나이에도 왕성한 정력에 넘쳐 통일애국성업에 전심할수 있는때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살라고 하시며 그의 건강을 따듯이 보살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다심하신 은정을 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덕신선생의 내외가 공화국에 영주한 이후 그들이 안락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생활상의 모든 편의를 다 보장해주셨다.

그러시고도 명절이면 잊지 않고 갖가지 색다른 식료품들도 보내주시었다. 또한 새해를 맞을 때면 최덕신선생을 위하여 일부러 시간을 따로 내서 오찬도 베풀어주시며 그가 건강할 몸으로 통일애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해주셨다.

주체77(1988)년 1월 2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해의 그 아침에도 최덕신선생과 자리를 함께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건강을 두고 넘려하시면서 최동무가 병원에 자주 가는것을 미안해하는데 젊은 사람도 아닌 늙은 사람이 왜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고, 최동무도 이제는 나이가 74살인데 건강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나는 최덕신선생의 건강에 대하여 다시금 걱정하시면서 그가 로망강화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을 통일하고야말겠다는 각오를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헤어지기 앞서 금년도에는 내가 최동무네 집에 한번 가보려고 한다고 정을 담아 교시하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최덕신선생이 통일애국의 한길에서 삶을 빛냈어나갈수 있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며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덕신선생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외국에 가지 못하게 병치료를 받도록 해주셨고 많은 의료품과 약품들을 보내주시었다. 그리고 특별비행기로 두부와 콩나물, 남새 등 조식음식감들도 보내주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이러한 사랑과 믿음은 자양분으로 하여 통일애국위업실현에 열과 정을 다 바쳐가던 최덕신선생은 그만 불치의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병상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할수 있는 온갖 치료대책을 다 세워주시었다.

주체78(1989)년 11월 초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그의 병문안을 하시기 위하여 병원에까지 나오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침상에 누워있는 최덕신선생을 따듯이 보살펴주시고나서

그는 진정한 조국의 품, 민족의 은인들의 품에 안겼기에 김일성훈장수훈자, 조국통일상수상자, 애국지사로 값높은 삶의 흔적을 남겼수 있었다. 그리고 부친 최동우, 장인 류영열, 차이모 류영준과 나란히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었다. 저마음 애국을 한다며 각같은 인생행로를 걸은 일가족이 함께 영생의 높은 언덕에 오를수 있게 된것이다.

최덕신선생에게 배풀어지던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은 그의 부인 류미영선생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남편이 이루지 못한 뜻을 변함없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그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위원, 친도교청우대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총장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지니고 통일애국의 길을 끝까지 걸을수 있었다.

하기에 류미영선생은 분열된 민족의 상징인듯 남조선과 해외에 널리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애국에는 높고낮음이나 크고작음이 있을수 없고 자기마한 애국심도 금욕같이 소중한것이다. 민족단결은 그 작은 애국이 곧 하나로 되는 과정이다.

이것은 내가 공화국에 영주한 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결론이다.

북과 남, 해외에서 사는 우리모두는 손을 굳게 잡고 통일애국위업을 실현하는 길에 애국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자.》

본사기자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범죄성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자기의 침략무력을 주둔시킨 첫날부터 전조선에 대한 지배를 실현할 목적에 무력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한편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팀 스프리트》합동군사연습과 《을지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드런》합동군사연습, 《련합전시중원연습》,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등은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가상한 북침전쟁연습들이였다.

이와 같은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은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30》, 《신련합작전계획

5015》, 《한미공동국지도달대비계획》과 같은 북침전쟁계획에 의해 진행되었다.

남조선과 주변에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곤 하였다.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은 그 범죄적성격으로 하여 우리 겨레와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

격을 받고있다.

그런데도 최근 윤석열패당은 미국과 2022년 하반기부터 지상실기동훈련을 배합한 《한》미련합군사연습을 벌려려고 하고있다.

윤석열패당이야말로 외세와 야합하여 민족의 안녕을 해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기 위해 미쳐날뛰는 국악단사대매국노, 동족대결광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전하는 기념관

재일동포들이 모여사는 교포부 우토로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평화에 대해 발전해나가는 지역주민들의 념원이 담긴 《우토로평화기념관》이 개관되었다.

4월 30일 준공기념식이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우토로지역출신인 동포가수가 《아리랑》을 부른 다음 관장의 인사가 있었다.

40여년간에 걸쳐 이 지역의 재일동포들과 친분을 맺

고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의 성원으로 동포들이 벌리는 권리호호투쟁에 힘을 보태는 그는 처음으로 이곳에 오신분들도 많을텐데 여러분은 오늘 우토로를 만났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우토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를 발전해나가고자 호소하였다.

이어 총련 교포부 김상일 위원장과 여러 관계자들이 축사를 하였다.

김상일위원장은 력사의 땅

우토로에 평화기념관이 훌륭하게 일떠섰다고 하면서 동포제일주의정신으로 우토로문제의 해결과 평화기념관의 건설에 한몫 다한 총련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경의를 표하였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계속하는 기념관이 우토로에 일떠선것은 한세기에 걸친 재일조선인사에서 특기할 일이다. 이 기념관이 재일동포들의 수난

의 역사를 온 세상에 알려가는 동포력사유산으로서 후세대에게 올바른 력사관을 심어주고 그들이 민족적자존심을 안고 떳떳이 살아나기도록 하는 후대교양의 거점,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과의 민족문화교류의 귀중한 거점이 되기를 기대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총련은 우토로주민들의 고귀한 투쟁정신을 귀중히 여기며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하여 재일조선인들의 참된 삶과 존엄을 되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다. 우토로지역의 력사와 평화기념관건설의 로정이 그리했던것처럼 광범한 일본시민들과 힘을 합쳐 조선반도와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겠다.》고 하였다.

기념식에서는 남조선의 시민단체와 개인들로부터 보내온 영상편지소개, 기념관건설에 공헌한 개인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관계자들이 준공예도를 끊고 새 출발을 알리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